

## 전북 제조업의 성장과 공간적 발달

Spatial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Chonbuk Province, 1975~1999

백 영 기\* · 김 진 석\*\*

요약

전북의 제조업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산업이었던 노동집약형 업종들의 중요도가 점차로 감소하고 자동차, 화학제품, 통신장비, 기타기계 등 새로운 업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다양성의 증가를 동반하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특성은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조 전환의 속도가 느려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형의 비중이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의 발달은 미약한 실정이다.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구조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이 전북제조업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심지역 내에서 제조업 이심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에 인접한 김제와 정읍 지역에 새로운 외부투자가 증가하여 분산화 현상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의 제조업 공간구조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극히 심하여 중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발달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주요어 : 전북 제조업, 산업구조, 공간구조, 외부투자, 이심화와 분산화

### 1. 머리말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온 전라북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이후에 공업화의 대상에서 거의 소외되었고, 국가경제구조가 공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농업위주의 전북경제는 농촌노동력과 더불어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수준과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개인소비와 집단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 수준이 매우 낮은 저개발경제로 특징

지워진 낙후 지역이다. 더욱이 1970년대이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전북으로 유입되는 인구 보다 지속적으로 커서 심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전북 개발의 정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북 산업구조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지역의 산업기반이 농업이라는 점과 농업분야에서도 거의 가공되지 않은 노동 집약적인 1차 농산물의 생산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적으로 미곡생산에 적합한 광활한 서부의 평야지대가 미곡주산지로

\*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지속 발전하게 된 것은 일제 식민지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산업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와 농산물 수요의 다양화로 인하여 곡물생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업의 대부분이 미작지역으로 잔존하였던 전북은 전국의 농산물 생산에서 그 비중이 점차로 줄어들었고, 야기되는 잉여인구는 타 지역의 생산활동을 위해 진출하게 되면서 전북은 고질적인 인구감소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발달하는 한국경제의 자본주의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도 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증가되면서 전체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감소하였다(정학섭, 1990)<sup>1)</sup>.

농업부문의 쇠퇴와 대조되며 성장하는 전북의 제조업은 1970년대부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sup>2)</sup>. 1960년대 말에 조성되기 시작한 전주지방공단을 시작으로 1973년에 이리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고, 1970년대 말에 군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전북의 근대적 공업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비록 전북의 제조업은 짧은 역사와 더불어 국가의 공업중심 축에서 벗어나 있어 그 발달의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전북 개발이 지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전북의 제조업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 성장으로 지역경제에서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면서 이 지역 제조업 발달의 추세와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 제조업 성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의 제조업변화의 추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업의 시간적 변화를 조사하기 앞서 전북 공업이 처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의 공업 발달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공업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전북의 제조업은 국가의 산업구조 정책에 커다란 영향

을 받았음이 분명하다(Appelbaum and Henderson, 1992; Chang, 1993; Holmes, 1998). 따라서 전북의 제조업 변화는 이 지역의 제조업이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구조정책에 적응하는 정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초부터 국가의 공업정책은 중화학공업 육성 위주에서 1970년대 말 초래한 위기 탈피를 위한 노력으로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기간을 거쳐서 1990년대의 첨단기술산업 육성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김건, 1991). 이러한 산업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공업기반 시설이 취약한 전북 제조업이 국가 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산업공간구조의 재편에 따른 변화가 주변지역인 전라북도의 산업공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eipziger, 1988; Knudsen, 1994). 최근 한국 제조업의 공간적 발달을 주변부 포드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전북 제조업의 성격이 논의되면서 대조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전북의 제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의 기반 위에서 굴뚝산업 및 사양산업의 종착지로서 더욱 주변화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며(조명래, 1991), 다른 하나는 그와는 달리 전북 지역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면서 산업고도화를 지향하는 신규 투자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조형제, 1994). 전북제조업이 주변화 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 지역이 낮은 생산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제조업발달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제조업 기반이 식품, 제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던 전북이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더욱 취약한 지역경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영정, 1994). 반면에 최근의 변화를 제조업 발달의 새로운 기회로 보는 시각은 공간

적 분업화로 분공장 투자가 확대되면서 제조업 성장과  
 부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 두 시각  
 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분명  
 한 것은 전북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간 이 지역 제  
 조업 발달과 제조업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중요한 특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 속  
 에서 전북지역이 변화에 대처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  
 은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  
 하고 전북 내의 제조업 입지의 변천을 조사하여 전북  
 제조업 공간의 진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1975년부터  
 1999년까지의 제조업 구조의 변화와 그 공간적 과  
 정을 조사하고 최근의 제조업 발달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의 방향을 모색한다. 여  
 기서 얻어진 결과는 전북이 한국 전체 제조업의 재구  
 조화 및 세계화의 과정에서 적응하는 정도를 파악하  
 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제조업 구조변화

전북 제조업 구조 변화는 1975년부터 1990년,

1991년부터 1999년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먼저 전북 제조업의 발전추이가  
 1990년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전국대비 전북의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에서는 197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종업원수와 생산액, 부가가치액에  
 있어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까지 감소하  
 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또한 이렇게 구분된 시기는 국가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1975  
 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반기는 중화학공업 육  
 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 기간이었으며 1990년 이후의 후반기는 합리화  
 와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는 뚜렷한 정책 변화를 보이는 시기라 할  
 수 있다(류재현, 이상철, 1993). 국가의 공업 정책  
 변화에 맞추어 구분된 두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의  
 비교는 국가정책이 전북의 제조업 전반과 개별부  
 문에 미친 효과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991  
 년부터 통계조사 방법이 변하면서 제조업 부문 분류가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부문 분류 범위가 과거와  
 는 일치하지 않아 1991년 이후의 자료를 이전시기의  
 것과 대비하여 비교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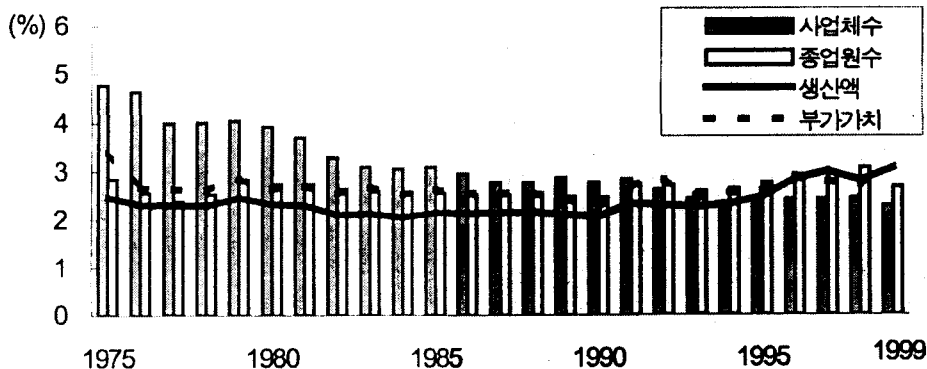


그림 1. 전국대비 전북제조업의 변화

1) 1990년 이전의 제조업 발달

199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1960년대에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으로 발달이 시작되어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으로의 구조조정을 거쳐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조가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제조업 업종별 고용은 1970년대 중반에 35.5%로 중심 부문이던 섬유·의복업종이 1990년에 22.1%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조립금속·기계·장비업종은 같은 기간동안 20.8%에서 37.7%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력업종이 되었다(표 1).

이에 비해 전북 제조업은 1970년대의 경공업 중심 공업구조가 198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전북의 중심 부문은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가죽,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 등의 경공업 부문으로 이들 업종이 전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72%에 달한다. 특히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과 음·식료품 부문들은 전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능가하여 특화 된 부문으로 1970년대의 전북 제조업을 대표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섬유·

의복 부문은 전북 내에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던 이 부문이 수도권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1970년대의 전북 특화산업은 비금속 부문으로, 이들 전북의 중심 부문들은 비숙련 노동집약적 부문으로 농촌 노동력이 기반인 주변지역의 전형적 산업구조를 보여준다.

1980년대 전북의 공업형태는 1970년대 형태의 일부가 그대로 지속되는 추세로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가죽,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 등이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여 경공업 중심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부문들 내에서는 음·식료품, 목재·나무 및 나무제품 부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섬유·의복 부문은 크게 성장하여 1980년대 동안 3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특화도가 계속 높아져 전북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집약적인 중심 부문들의 전북 내 비중은 197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또한 조립금속·기계·장비, 비금속,

표 1.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형태(1975-1990) (종업원수)

	전국(%)				전북(%)				입지계수(LQ)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31 음식료.담배	10.6	9.0	8.1	7.1	29.3	17.2	16.3	14.1	2.8	1.9	2.0	2.0
32 섬유.의복 및 가죽	35.5	30.9	28.1	22.1	28.0	36.0	37.8	36.4	0.8	1.2	1.3	1.7
33 목재, 나무 및 가구	3.7	3.3	2.8	2.9	14.7	12.8	7.6	5.2	4.0	3.9	2.8	1.8
34 종이 및 종이제품	4.9	4.5	4.4	4.5	5.1	6.5	6.8	7.4	1.0	1.4	1.5	1.7
35 석유.화학	12.9	13.2	13.2	14.4	8.1	9.2	9.4	8.5	0.6	0.7	0.7	0.6
36 비금속	4.3	4.7	4.6	4.2	5.4	4.6	7.0	9.2	1.3	1.0	1.5	2.2
37 제1차금속	3.3	4.5	4.1	4.0	0.6	0.9	1.5	1.4	0.2	0.2	0.4	0.4
38 조립금속.기계.장비	20.8	26.5	31.0	37.7	7.8	7.9	7.3	13.0	0.4	0.3	0.2	0.3
39 기타제조업	4.0	3.5	3.9	3.1	1.0	4.8	6.2	4.8	0.3	1.4	1.6	1.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기타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등의 전북 내 고용비중이 증가하면서 업종 구조가 다양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고용이 증가한 부문들 중에 중화학 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1980년대에 전북 공업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전북 제조업의 고용구조가 전국 제조업의 구조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생산관련 다른 항목에서 전북 제조업의 성격을 전국 제조업의 것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북 제조업은 높은 고용성장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수와 사업체수 뿐만 아니라 생산액 등 생산관련 모든 항목들의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말까지 계속 감소하였다(표 2). 또한 생산액과 출하액의 증가율에 비해 부가가치 증가율도

1970년대는 낮았던 것에 비해 1980년대에는 높아 전북 제조업이 198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 되지 못하고 있다(표 3).

1990년 이전의 전북 제조업의 구조적 특징은 전북 산업성장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다. 1970년대의 전북의 대표적 업종은 섬유·의복, 음·식료품, 나무제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들로, 전북지역에서의 이들 업종의 성장기반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배정책과 관련된다. 일제 강점기에 전북은 식민지배를 위한 식량공급기지이며 원자재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전북지역은 식품과 제지업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최낙필 외, 1991). 일제시대에 구축되었던 이러한 체제는 그대로 계승·유지되었고 전북의 초기 공업형태의 특징으로 반영되었다. 여

표 2. 전북 제조업의 전국 비중

(%)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1975	4.8	2.8	2.5	2.5	2.0	3.4	1.3
1980	3.9	2.7	2.3	2.3	2.2	2.6	2.2
1985	3.1	2.6	2.1	2.1	1.9	2.6	2.2
1990	2.8	2.4	2.1	2.1	1.9	2.2	2.2
1995	2.4	2.8	2.5	2.4	2.4	2.6	3.7
1999	2.3	2.7	3.1	3.1	3.0	3.1	3.9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3. 전북 제조업의 생산관련 항목 연평균 증가율

(%)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1975-1980	전국	7.1	68.8	68.1	71.4	63.8
	전북	2.2	63.4	61.7	80.4	44.9
1980-1990	전국	20.2	38.9	39.7	33.6	49.8
	전북	7.5	33.5	34.4	29.4	40.5
1990-1999	전국	3.3	17.1	17.4	16.2	18.4
	전북	0.9	30.0	30.2	30.8	29.2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기에 19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 방향에 적절히 따르지 못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 2) 1990년대의 제조업 발달

1990년대 전북 제조업 발달은 이전 시기와 큰 변화를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저조하던 전북의 제조업 성장속도가 1990년 이후 들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구조에 있어서도 1990년 이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4). 즉, 1990년 이전 전북 제조업의 중심 부문이었던 섬유·의복, 음·식료품, 나무제품 등의 비중은 1990년의 56%에서 1999년에는 37%로 낮아졌으며, 반면 조립금속·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4%에서 42%로 증가하여 1990년대의 중심부문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에 고용의 중심업종은 의복·모피, 섬유제품, 음·식료품, 비금속, 종이제품 제조업의 순이었으나 1999년에는

표 4. 전북 제조업 업종별 형태(1990-1999) (종업원수)

	전국				전북				
	1990	1995	1999	연평균성장률 (1990-1999)	1990	1995	1999	연평균성장률 (1990-1999)	입지계수 (LQ)
15 음식료품	7.0	7.0	7.0	-1.7	13.1	15.2	15.1	1.2	2.3
16 담배	0.1	0.2	0.1	-5.8	1.0	-	-	-	-
17 섬유제품	9.1	9.5	9.1	-4.0	14.7	6.2	8.1	-5.2	0.7
18 의복, 모피	5.7	6.8	5.7	-4.5	21.5	19.3	11.5	-5.4	1.2
19 가죽, 가방	2.2	2.8	2.2	-8.3	1.1	0.1	-	-	-
20 목재, 나무	1.1	1.4	1.1	-4.3	4.6	3.4	2.2	-6.0	2.7
21 펄프, 종이	2.2	2.3	2.2	-1.7	6.4	5.7	5.3	-2.1	3.2
22 출판, 인쇄	3.3	3.2	3.3	1.2	1.1	1.1	1.3	0.9	0.1
23 석유정제	0.5	0.4	0.5	2.9	0.0	0.0	0.0	-11.1	0.0
24 화학제품	5.3	5.2	5.3	0.3	5.3	7.3	7.1	3.4	1.3
25 고무	5.8	4.8	5.8	0.7	1.5	2.0	3.5	12.9	0.8
26 비금속	3.4	4.5	3.4	-3.9	9.5	10.3	8.0	-2.1	2.1
27 1차금속	4.2	4.1	4.2	-1.7	1.6	3.5	3.3	11.5	0.8
28 조립금속	6.8	6.7	6.8	2.0	2.3	3.3	3.0	2.6	0.4
29 기타기계	10.2	10.2	10.2	-0.1	2.1	3.2	4.2	10.3	0.3
30 사무기계	1.9	1.1	1.9	15.9	0.5	0.5	0.7	3.0	1.1
31 전기기계	5.2	4.5	5.2	1.9	3.2	2.7	2.8	-1.6	0.6
32 영상, 음향	9.5	9.2	9.5	-2.3	3.5	5.0	5.7	6.6	0.2
33 의료, 정밀	1.7	1.7	1.7	-0.6	0.5	0.7	0.7	5.1	0.2
34 자동차	7.8	7.5	7.8	0.5	0.5	6.8	13.8	264.4	2.5
35 기타운송	3.7	3.1	3.7	5.5	0.2	0.3	0.1	-3.5	0.0
36 가구, 기타	3.3	3.8	3.3	-4.9	5.8	2.7	2.6	-6.2	0.7
37 재생재료	0.2	0.1	0.2	55	0.0	-	0.1	34.5	0.5
제조업	100	100	100	-1.9	100	100	100	-0.4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음·식료품, 자동차, 의복·모피, 섬유제품, 비금속제품 제조업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 전북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주도한 부문은 1980년대까지 성장이 부진하였던 자동차, 1차금속, 사무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의료·정밀기기 등 가공조립형 부문으로, 사무기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국의 성장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 1990년대 초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분공장이 입지하면서 1990년에서 1999년의 기간동안 무려 연평균 26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전국 평균을 능가하여 특화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전북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였다. 이와 함께 고무, 1차금속, 기타기계 등도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의 주도 부문이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의 비중은 음·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더욱 빠른 쇠퇴를 보이면서 전북 제조업 고용 감소를 주도한 업종이 되었다. 노동집약적 부문들의 침체는 1990년대의 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이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러한 부문별 성장의 차이는 전북 제조업의 업종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 제조업의 성장은 생산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생산관련 항목들의 변화를 통해 1990년대 전북 제조업의 내용을 파악하면 모든 항목에서 전북의 성장율이 전국의 경우보다 높아 이 기간동안 전북지역의 생산과 투자활동이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표 3). 특히 유형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두 배에 가깝게 이루어져 전북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생산관련 항목들의 전국 비중은 1970년대 중반이후 1990년까지 모든 항목에서 계속

낮아졌으나, 1990년대에는 사업체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표 2).

전북 제조업이 1990년대 들어 빠른 성장과 함께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중심 부문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가공조립형 부문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가공조립형 부문의 전북 비중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전북 제조업 구조변화의 내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부가가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표 5).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사무기계만이 크게 증가했으며 나머지 업종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으며, 1990년대 전북 제조업의 성장과 구조재편을 선도한 업종들인 자동차,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화학제품 등의 부가가치율이 크게 떨어져, 전북 제조업의 구조재편이 질적으로 고도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부문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경제성장은 기존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Fingleton, 1994, Storper and Scott, 1992). 따라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의 발전이 매우 필요하지만 전북 지역의 경우 첨단산업의 발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98년에 벤처기업의 전북비중이 2.2%로 벤처기업의 발전이 미약하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이환성, 유승한, 1998). 더구나 전북지역 벤처기업의 특성을 보면 첨단기술 부문과 관련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적인 제조업부문이나 서비스부문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 5.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국			전북		
	1991	1995	1999	1991	1995	1999
제조업	42.0	43.7	41.9	48.7	45.7	42.2
15 음식료품	40.3	41.2	43.0	39.8	42.1	38.9
16 담배	74.3	74.8	66.2	77.5	-	-
17 섬유제품	42.9	44.6	44.4	54.2	48.8	40.9
18 의복, 모피	47.8	48.6	49.0	49.8	45.9	49.5
19 가죽, 가방	39.4	39.7	37.0	46.7	60.7	-
20 목재, 나무	41.9	41.6	40.5	36.1	39.5	39.5
21 펄프, 종이	38.8	38.2	39.0	39.5	43.2	41.6
22 출판, 인쇄	60.2	60.5	60.8	65.5	65.1	58.1
23 석유정제	27.1	32.8	25.4	0.0	0.0	0.0
24 화학제품	43.3	44.3	41.1	50.7	42.8	39.4
25 고무	41.6	44.7	43.3	40.2	43.5	40.7
26 비금속	50.3	50.4	50.7	53.3	52.5	54.7
27 1차금속	36.7	35.2	33.7	49.1	36.0	49.3
28 조립금속	42.6	44.0	44.0	50.3	44.8	49.2
29 기타기계	41.4	41.7	43.6	50.8	48.6	46.4
30 사무기계	38.9	31.1	30.3	31.1	20.0	48.2
31 전기기계	38.0	40.5	38.9	40.9	40.8	43.6
32 영상, 음향	43.3	54.5	51.7	46.6	39.2	31.5
33 의료, 정밀	45.3	45.9	46.0	59.2	62.3	55.7
34 자동차	37.4	37.3	38.2	73.9	52.4	40.6
35 기타운송	49.2	44.8	45.9	48.7	56.3	47.3
36 가구, 기타	49.3	50.4	43.6	49.4	42.2	40.4
37 재생재료	52.0	26.5	33.1	60.0	-	44.8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전북지역 첨단산업의 발전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한편 전북 제조업 발달에서 분공장의 역할이 커서 분공장 경제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에 사업체수의 전국 비중이 종업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전북지역의 업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표 2). 이것은 대기업의 분공장 투자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이 점은 1990년 이전부터 이미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제조업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중견기업들 가운데 종업원 500명 이상인 중규모 이상의 기업들 중 대부분이 전북지역 외

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라는 조사가 있다(최낙필 외, 1991)<sup>4)</sup>. 분공장 경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의 안정성이 낮다(Watts, 1981; 김진석, 1989; 백영기 1995). 그러나 전북과 같은 주변지역의 경우 제조업 발달에 이들 분공장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들 분공장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Harris, 1991; Jackson, 1989). 이 외에 제조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 및 조직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전문생산자서비스업은 유연적 생산체제의 성장과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입지는 기업본사의 입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신성일, 1992; Daniells, 1991; MacPherson, 1991). 생산자서비스업 발달의 취약성은 전북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집약화와 기업의 본사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3. 제조업 공간구조

전북지역 제조업의 공간적 발달은 전통적으로 전주, 익산, 군산의 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세 도시와 전주에 인접한 완주군을 포함한 지역은 전북 전체 인구의 64.8%가 거주하고 있는 전북의 인구 중심지역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전북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지칭할 것이다. 이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1998년에 고용에서는 80.2%, 사업체 수에서는 70.4%로,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2, 3, 표 6). 중심지역에 대한 제조업 집중은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 심화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주변지역으로 분산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와 3을 보면, 1990년대의 주변지역으로의 제조업 분산은 김제시와 정읍시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1998년에 두 도시가 전북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의 12.5%, 사업체수의 16.8%에 달한다. 이 두 도시가 주변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의 62.8%, 사업체수의 56.9%로 주변지역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이었다. 한편 중심지역 내에서의 제조업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1990년대 들어 교외지역으로 빠르게 분산하는 경향이 다<sup>5)</sup>(표 7). 따라서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발달은 전주, 익산, 군산의 3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주변지역으로의 제조업 분산과 중심지역 내에서의 이심화 현상이 진행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에 있어서 전북 제조업은 1990년대에 들어 주변지역으로의 분산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관련 항목들의 공간분포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등의 모든 항목에서 중심지역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중심지역의 비중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8). 중심지역과 김제와 정읍을 포함할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90% 이상으로 전북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활동이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주변지역을 중심지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반면 생산비의 비중은 높아 주변지역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고비용,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형고정자산을 제

표 6. 전북 제조업의 공간분포

(%)

	중심지역				주변지역			
	1971	1981	1991	1998	1971	1981	1991	1998
사업체수	60.7	79.9	79.3	70.4	39.3	20.1	20.7	29.6
종업원수	75.9	90.9	85.4	80.2	24.1	9.1	14.6	19.8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중심지역: 전주, 익산, 군산, 완주군

주변지역: 정읍, 남원, 김제, 부안, 고창,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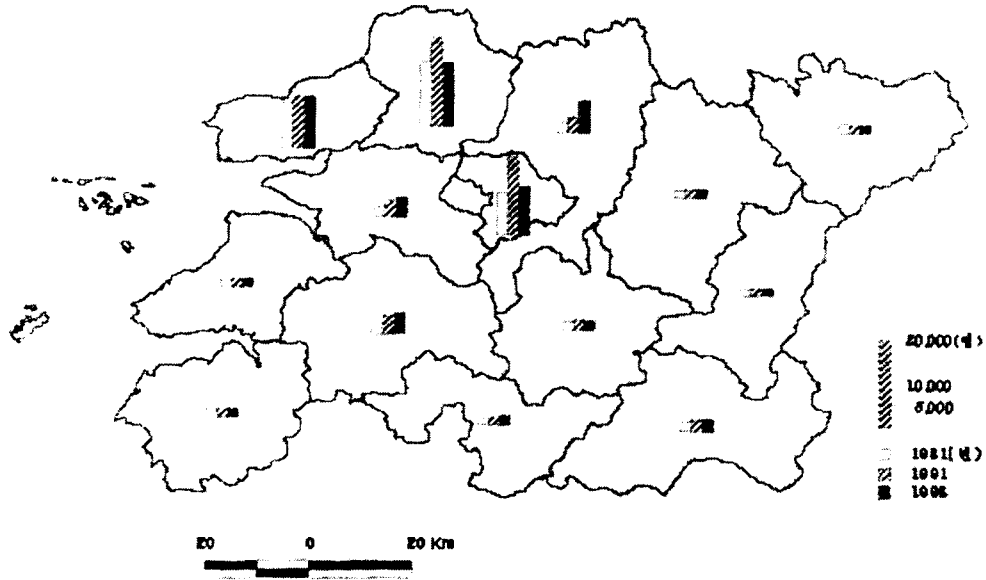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제조업 종업원수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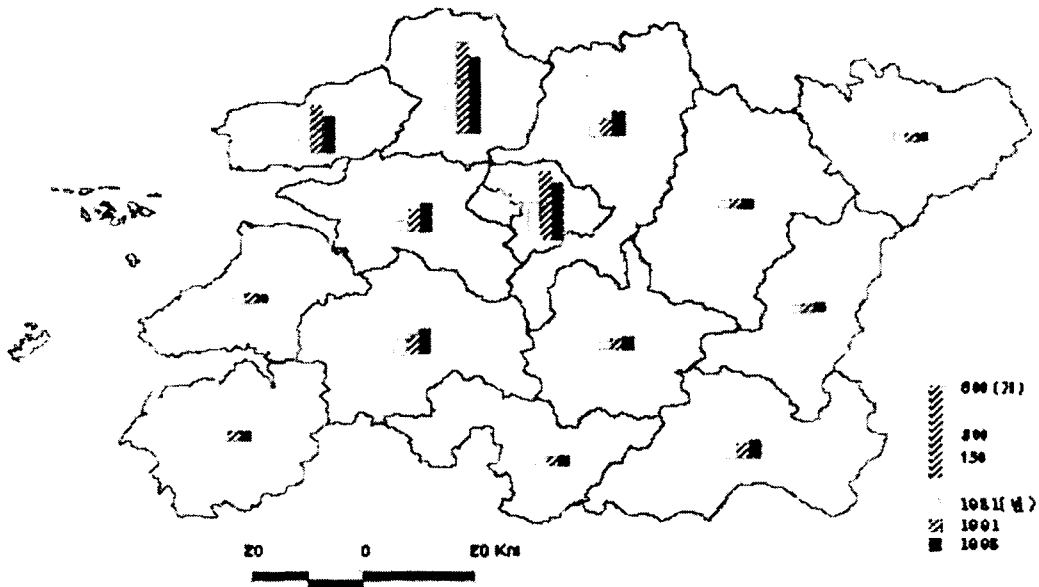


그림 3. 전북 제조업 사업체수의 공간분포

표 7. 중심지역 내 제조업 분포

		1971		1981		1991		1998	
		개, 명	%	개, 명	%	개, 명	%	개, 명	%
사업체수	도시지역	504	81.3	525	76.9	1,079	76.5	829	64.9
	교외지역	116	18.7	158	23.1	331	23.5	449	35.1
	계	620	100	683	100	1,410	100	1,278	100
종업원수	도시지역	18,249	92.1	38,186	88.8	57,458	88.0	38,761	72.1
	교외지역	1,562	7.9	4,828	11.2	7,840	12.0	14,963	27.9
	계	19,811	100	43,014	100	65,298	100	53,724	100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도시지역: 동지역, 교외지역: 읍·면지역

표 8. 지역별 광공업 생산관련 항목의 비율

		(%)				
		생산액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전라북도		100	100	100	100	100
중심지역	1985	92.2	91.9	91.4	93.2	88.4
	1990	88.2	88.3	86.5	90.3	86.1
	1995	83.0	82.7	82.4	83.7	87.9
	1999	83.9	84.2	81.2	87.6	89.2
주변지역	1985	7.8	8.1	8.6	6.8	11.6
	1990	11.8	11.7	13.5	9.7	13.9
	1995	17.0	17.3	17.6	16.3	12.1
	1999	16.1	15.8	18.8	12.4	10.8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외한 다른 생산관련 항목들의 비중이 8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변지역의 제조업의 체질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 생산액 등 생산관련 항목의 주변지역 비중이 전반부에 증가하다가 후반부에 들어서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것은 1997년 말의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을 주변지역이 더욱 민감하게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준다.

전북지역 제조업 공간 구조의 특징을 입지 배경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1970년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북의 제조업 발달은 다른 지역처럼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Markusen and Park, 1993). 전북지역의 11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중 8개가 중심지역에 입지하여 이들 공업단지가 전북의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sup>6)</sup>. 한편 1980년대 후반이후의 주변지역으로의 제조업 분산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농공단지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백영기, 1995)<sup>7)</sup>. 전체 농공단지 중 12개가 중심 세 도시와 전주시에 인접한 김제시에 입지하고 있고, 여기에 전북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고용이 50% 이상 집중해 있다.

둘째로는 1990년대의 제조업 분산 현상은 공업부

지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관이 있다. 중심지역의 기존공단이 새로운 생산활동에 부적합하고 신규 공단을 위한 부지확보가 중심지역 내의 주변부에서 훨씬 용이하여 공업용 토지개발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공업화정책에 따른 주변지역 공단조성이 시행되면서 신규투자가 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지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산화 현상을 제조업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조사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신규투자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박삼욱(1993)의 유형분류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구조적 특징을 단순화 시켜 분석하였다<sup>8)</sup>. 제조업 유형별 분포를 보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중심지역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조립형 산업이 많이 입지해 있다(그림 4). 1990년대의 이러한 분포는 전북지역의 제조

업 구조가 조립형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으로 조립형 업종의 신규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변지역에서의 조립형 산업의 성장은 성숙화된 부문인 경우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분공장 투자가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간적 분업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Massey, 1984; Phelps, 1993).

셋째로, 전북지역 제조업 공간분포는 또한 노동력의 분포와 관련된다. 전북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절대적인 감소를 경험하였는데, 이 지역의 지체된 산업발전 과정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으로의 인구가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가출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활발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백영기 외, 1993). 따라서 전북지역 내에서 제조업 신규투자는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한 중심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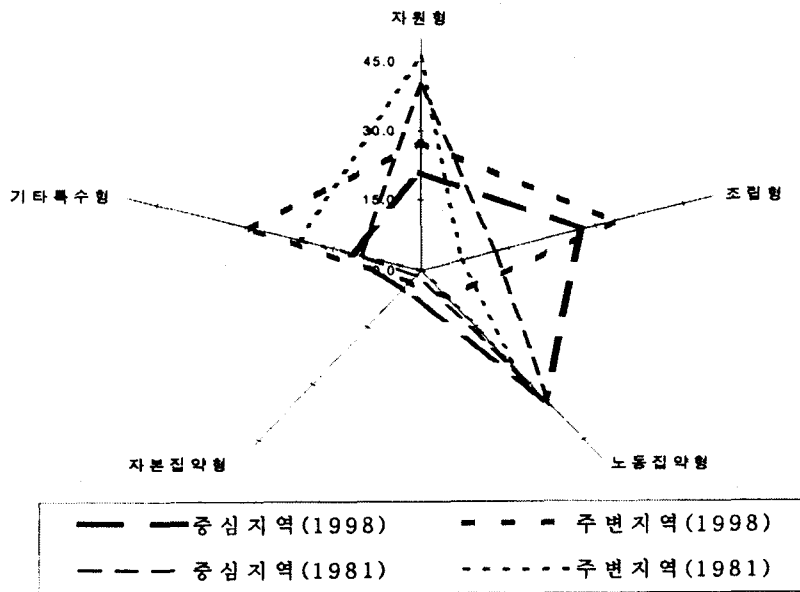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제조업 유형별 분포(사업체수)

####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중반부터 전북의 제조업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었던 섬유와 의복, 음·식료품, 나무제품 등의 업종이 1990년대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상대적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반면에 새로운 업종으로 자동차, 화학제품 업종이 크게 증가하여, 전북 제조업 구조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기타기계 업종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북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던 업종들이 쇠퇴하고 자본집약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국가 제조업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전북의 제조업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 구조가 중화학 공업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통적 비첨단기술 산업에 치중하는 전북 제조업의 구조적 특징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변지역의 적응면에서 지연효과에 의해 시차간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는 제조업의 공간구조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공업화가 국가 주도의 공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주변부에 입지한 전북 제조업도 이들 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이 치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는 아주 다르며 새로운 추세를 동반하고 있다. 전북의 중심지역에 있는 이들 세 도시가 인구 집중 지역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이며, 지역 정보처리의 중심지로 정보기술 측면에서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제조업 집중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제조업 집중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조업 발달이 지역 내의 중심에서 벗어나 교외지역에 활발하여 제조업 교외화가 뚜렷하게 야기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추세는 새로운 제조업 외부투자가 중심 지역 부근의 김제와 정읍 지역에서 활발하여 이 지역으로 제조업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입지여건이 불리한 주변부 농촌지역에서 공간 중심의 분공장 투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Shaw and Williams, 1985; Johnson, 1989; Potter, 1993). 전북 제조업 공간변화는 산업발달 주기성에 따라서 제조업 공간이 성장, 성숙, 노쇠하는 변천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Markusen, 1985). 결국 기 발달된 중심지역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잘 적응하여야 산업발달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전북의 제조업이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에서 섬유와 의복, 음식료품 등의 업종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력의 경쟁력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Johnson, 1997). 현실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경쟁을 고려할 때 노동비용의 유리함은 전국의 어디서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낮은 노동비용이 공장입지의 주요한 매력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다른 성격에서 비교우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교육 수준에 있는 농촌 인구는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농업에서 오는 유연성과 기계 다루는 숙련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질서에 잘 어울려질 수 있다고 한다(Haynes and Machunda, 1987). 따라서 농촌기반의 전북 노동력의 잠재성을 살려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 산업의 급속한 발달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유연적 생산체계로의 변화에 대한 주장이 활발하다 (Storper and Scott, 1992; Malecki, 1995). 이 유연적 체계가 활발하게 보급되는 최근의 추세에서 새로운 산업공간의 수혜자로서 주변지역에 속한 이 지역이 자리잡을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Storper, 1990). 유연적 생산체계는 생산구조를 점차로 외부화 하여 분할되는 속성을 갖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간적 수렴화를 유발하여 집적의 유리함을 이용하며, 새로운 생산체계의 속성은 생산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정, 그리고 경쟁심화에 따른 경제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북이 새로운 산업공간의 후보지가 된다고 하여도 집적의 유리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중심지역이 우선적으로 해당될 것이다. 최근 군장공단이 조성되면서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이 유치되어 지역에 관련 업체와 수많은 하청기업이 연계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잘 짜여진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생산체계의 형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지역에 발달하는 분공장 경제는 지방화 된 거대구조 보다는 내부거래가 특징이다. 더욱이 복잡한 기술적 분공장의 경우에 연계는 지방화 되지 않고, 집적의 이익을 얻는데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Harrison et. al., 1996).

끝으로 경제경관의 형성에 문화와 제도의 역할이 점차로 강조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Schoenberger, 1994).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 또는 정치 문화이다. 정치문화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기준, 상황을 한정하는 방법, 대안의 선택, 행동에 관련되는 양식이다. 정치문화는 어떤 정책이 채택될 것인지 거부될 것인지를 거르는 여과작용을 하며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필요에 지역이 반응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유도하

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다고 할 때, 유연적 시대에서 구조개편의 압력에 투쟁하는 기업들에게 후자가 선호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산의 통제와 설계, 신기술 도입,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업가들의 의지가 발산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비참여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사회가 기업투자와 경제재편에 바람직한 장소라는 것이다 (Florida, 1996). 그러나 최근 위의 사고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면서, 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치문화가 변하고 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은 새로운 산업의 구축과 구 산업의 변혁을 강조하며, 중요한 요인으로 자본이용성의 증가, 노동력의 재교육, 기술혁신의 촉진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註

- 1)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960년대 후반 66%에서 1980년대는 30%로 감소하였다.
- 2) 198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창설년도별 사업체 비중을 보면 1971년 이후 창설업체가 90%를 차지한다(유성렬, 1991).
- 3)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생산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섬유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의 투자가 활발하였다(김훈, 1996).
- 4) 최낙필 외(1991)의 조사에 의하면 전북지역 종업원 500명 이상의 제조업체 17개 중 12개가 전북지역 외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사업체수, 종업원수의 증가율에서는 낮지만 생산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율에서는 훨씬 높아 전북 제조업의 외부종속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군산시와 이리시는 1995년에 인접 군인 옥구군과 익산군을 통합하여 군산통합시와 익산통합시가 되었다. 따라서 세 도시의 교외지역으로 전주시는 완주군으로, 군산시와 익산시는 1995년 이전의 옥구군과 익산군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6) 1998년에 전북지역의 공업단지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11개, 농공단지가 28개로, 전북 전체에서 공업단

- 지 입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로는 10.3%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수로는 47.4%에 이른다. 공업단지 입주업체 고용의 78.7%가 중심지역의 공업단지에 분포해 있다.
- 7) 전북지역의 28개 농공단지 가운데 27개가 1986년 이후에 조성되었다.
- 8) 박삼옥(1993)은 생산특성에 따라 제조업 유형을 자원형, 조립형, 노동집약형, 자본집약형, 기타특수형의 5개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1980년대에 노동집약형에서 조립형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원형은 식료품(311), 나무(331), 종이(341), 석유·석탄(354), 비금속(369), 비철금속(372), 조립형은 가죽(323), 가구(332), 플라스틱(356), 조립금속(381), 기계(382), 전기기계(383), 운수장비(384), 정밀기계(385), 노동집약형은 섬유(321), 의복(322), 신발(324), 고무(355), 기타제조업(390), 자본집약형은 산업화학(351), 석유정제(353), 철강(371), 기타특수형은 음료품(313), 담배(314), 인쇄·출판(342), 기타화학(352), 도기·자기(361), 유리(362) 업종들이다.

## 참고문헌

- 김갑성, 송영필, 1997,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김건, 1991, 1980년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한국자본주의의 분석, 일빛.
- 김영정, 1994, "호남지역 재구조화 과정의 현재," 한국공간환경학회 위임,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 김진석, 1989, "공업의 공간연계와 의사결정권한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39호, pp.59-78.
- 김훈, 1996,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96년 10월호.
- 류재현, 이상철, 1993, "산업구조조정 전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녹두.
- 박삼옥, 1993, "수도권 제조업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방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지리학논총 21, pp.1~16.
- 박선민, 군산공업지역의 형성과정과 구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백영기, 박임구, 장재우, 1993, "농공지구입지분석: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연구, 제9권 제2호, pp. 103-119
- 백영기, 1995, "한국 제조업에서의 외부통제에 관한 공간적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0(2), pp. 146-168.
- 신성일, 1992, 제조기업 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연계-수도권지역을 사례로,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성렬, 1991, 전북지역 제조업의 하청구조에 관한 연구-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전북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환성, 유승한, 1998, 지방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전영미, 1991, "군산공업단지의 공업구조와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6, pp.68-98.
- 정학섭, 1990, "전북지역의 공업구조에 대한 일고찰," 전북대학교 농촌사회발전연구소, 농촌사회연구 창간호, pp.131-148.
- 조명래, 1991,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와 지역 재구조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 조형제,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나남, pp.205-235.
- 최낙필, 박승기, 안진, 박태식, 이해경, 김선곤, 1991, "전북경제의 정체성 극복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3, pp.79-151.
- 한상진, 1994, 1980년대 이후 수도권지역의 산업재구조화-기업전략과 지방노동시장의 변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한상진, 1996, "1980년대 이후 울산지역의 제조업 변동,"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6(2), pp.81-93.
- Appelbaum R.P. and J. Henderson (eds.), 1992, States and Development in the Asian Pacific Rim, Newbury Park: Sage.
- Chang Ha-Joon.,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the role of the state in Sou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2), p.131.
- Chowdhury A. & Islam I., 1993, *The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of East Asia*, London: Routledge.

- Daniels, P.W., 1991, "Some Perspectives on the geography of servic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1), pp.37-46.
- Fingleton B., 1994, "The location of high-technology manufacturing in Great Britain: changes in the late 1980s," *Urban Studies* 31(1), pp.47-57.
- Florida R., 1996, "Regional creative destruction: production organ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Midwest," *Economic Geography* 72(3), pp.314-52.
- Foley A. & Griffith B., 1992, "Indigenous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a peripheral economy and the single market: the case of the Republic of Ireland," *Regional Studies* 24(4), pp.375-386.
- Harris, R.I.D., 1991, "External ownership and government policy: some further evidence for Northern Ireland," *Regional Studies*, 25(1), pp.45-62.
- Harrison B., Maryellen R. K., Jon G., 1996, "Innovative firm behavior and local milieu: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agglomeration, firm effects, and technological change," *Economic Geography* 72(3), pp.233-258.
- Haynes K.E. & Machunda Z.B., 1987, "Spatial restructuring of manufacturing and employment growth in the rural Midwest: an analysis for Indiana" *Economic Geography* 63(4), pp.319-333.
- Healey M.J. and Ilbery B.W.(eds.), 1985,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side*, Norwich: Geo Books.
- Holmes, T. J., 1998, "The effect of state policies o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evidence from state bord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4), pp.667-705.
- Jackson, R.W., 1989, "Conjoining industry linkages and ownership data: an empirical application," *Growth and Change* 20(1), pp.34-54.
- Johnson M.L., 1989,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location of high-technology branch plants in the nonmetropolitan southeast" *Economic Geography* 65(1), pp.33-47.
- Johnson M.L., 1997, "To restructure or not to restructure: contemplations on postwar industrial geography in the U.S. South," *Southeastern Geographer* 37(2), pp.162-192.
- Knudsen D.C., 1994, "Flexible manufacturing ... to the Special Issue," *Growth and Change* 25, pp.135-143.
- Leipziger D. M., 1988,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ea. (Korea: Transition to Maturity, Special Issue)," *World Development* 16(1), pp.121-135.
- MacPherson A., 1991, "New product development among small industrial firm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role of technical service linkages in Toronto and Buffalo", *Economic Geography* 67(2), pp.136-146.
- Malecki E.J., 1995, "Flexibility and industrial districts," (Editorial) *Environment & Planning A* 27(1), pp.11-14.
- Markusen A. and Park S.O., 1993, "The state as industrial locator and district builder: the case of Changwon, South Korea" *Economic Geography* 69(2), pp.157-181.
- Markusen, A., 1985, *Profit Cycles, Oligopoly and Regional Development*, Cambridge MA: MIT Press.
- Massey, D.B.,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New York: Methuen.
- Phelps E.N.A., 1993, "Branch plants and the evolving spatial division of labour: a study of material linkage change in the northern region," *Regional Studies* 27(2), pp.87-101.
- Potter J., 1993, "External manufacturing investment in a peripheral rural region: the case of Devon and Cornwall," *Regional Studies* 27(3), pp.193-206.



- Schoenberger, E., 1994, "Corporate Strategy and Corporate Strategist: Power, Identity, and Knowledge within the Firm,"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3), pp. 435-451.
- Shaw G. and Williams A., 1985, "The role of industrial estates in peripheral rural areas: the Cornish experience 1973-1981," in Healey M.J. and B.W. Ilbery (eds.) 1985,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side*, pp.221-241.
- Storper M. & Scott A.J.(eds.), 1992, *Pathways to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Storper M., 1990, "Industrialization and the regional question in the third world: lessons of postindustrialism: prospects of post-Ford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4, pp.423-44.
- Watts, H.D., 1981, *The Branch Plant Economy: A Study of External Control*, New York: Longman.

**Abstract**

**Spatial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Chonbuk Province, 1975-1999**

Yeong-Ki Beck\* and Jin-Seok Kim\*\*

Manufacturing industry in Chonbuk region has experienced relatively consistent increase during period 1975-1999. The importance of labor-intensive sectors such as textiles and clothing, wood and furniture, and food and drink,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major sectors in this region, has declined over the sam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shares of more complex sectors like automobile, chemistry, communication equipment, and other machinery have gone up. The structural change of Chonbuk manufacturing industry, with increasing diversity, follows the national trend of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national industrial policies, but the speed and level of the change has been slow and low in terms of the national standard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especially with the weak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industry.

In Chonbuk,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has shown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Although spatial concentration is apparent in the central area including the cities of Chonju, Iksan, and Kunsan, new tendency towards industrial decentralization within this area has been found. The tendency means manufacturing development at the fringe of this area. There is another tendency towards industrial dispersion into the cities of Kimje and Jeongup close to this central area. The spatial dispers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accelerated in the form of increasing external investment. But despite the tendency of the spatial dispersion,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rest of the region still remains a marked inferiority.

**Key words** : Chonbuk manufacturing industry, industrial structure, spatial structure, external investment, deconcentration and dispers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Instruct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